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8. 8. 9.(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담당자 • 과장 황통성, 사무관 정재훈, 주무관 윤용식 • ☎ (044)200-5460, 5463, 5464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국내 최초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진수식 열려

- 8.10 군산항에서 진수식 개최... 내실있는 수산계고교 승선실습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8월 10일(금) 오전 11시 군산항 제1부두에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의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진수식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수산계 고등학교, (주)삼원중공업 및 한국선급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성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승선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구분		교육내용
공통 프로 그램 (연수원)	종합승선실습	3개월간 항해 실무, 기관실무, 어구·어업실습 등 승선훈련
	현장실습	3개월간 양식, 가공·유통, 냉동·냉장 등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참수교육(공모)	3주간 산업참수 등 현장실습
	국제 교류 학습	공통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우수학생 해외 선진지 연수(3박4일 내외)
자체 프로그램		학교 자체적으로 수산(해기사, 양식기능사 자격 등), 해양(스킨스쿠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습장비 지원		학교 내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장비 지원

그러나, 기존 실습선인 ‘제2갈매기호’는 선령이 25년으로 노후되어 안전문제와 교육 운영상 어려움이 지속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년부터 ‘18년까지 총 33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어업실습선의 대체건조를 추진하였으며, ‘17년 선박 명칭 공모를 통해 ‘바다를 누비는 큰 용’이라는 의미를 담은 ‘한미르호’로 이름을 선정하였다.

이번 진수식의 주인공인 ‘한미르호’는 군산에 위치한 (주)삼원중공업이 건조하였다. ‘한미르호’는 1,520t급으로, 전장 70m에 최대 속력은 15.3노트(약 28km/h), 탑승인원은 83명이다.

<한미르호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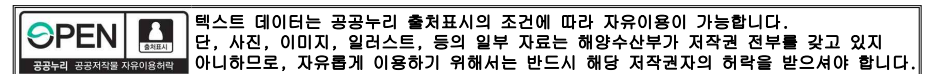
총톤수	최대 속력	전장(LOA)	수선간장(LBP)	형폭(MLB)	형깊이(MLD)	만재흘수
1,520톤	15.3kts	약 70.6m	약 63.8m	약 14m	약 8m	약 4.4m

또한, ‘한미르호’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다목적 어업실습선으로, 선망, 오징어채낚기, 연승 총 3종의 어업을 종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복합어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장형 실습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선망어업) 밀집된 어군을 긴 사각 어망으로 둘러싼 후 잡는 어업(고등어 등)
(오징어채낚기) 낚시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개를 단 어구를 내린 후
집어등을 보고 모여든 오징어를 낚아 감아 올리는 어업
- (연승어업)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달린 낚시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낚는 어업(참치, 갈치 등)

‘한미르호’는 인수시험평가를 거쳐 올해 11월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정식 취항식은 내년도 수산계 고등학교 승선실습이 시작되는 4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미르호를 통해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수산분야의 미래 인재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한미르호 건조 사진



한미르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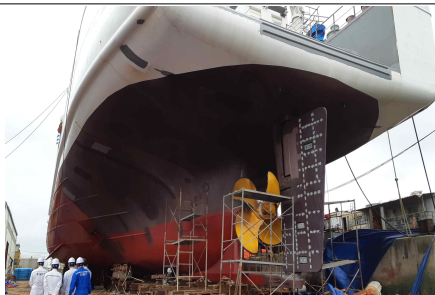
한미르호 전경



한미르호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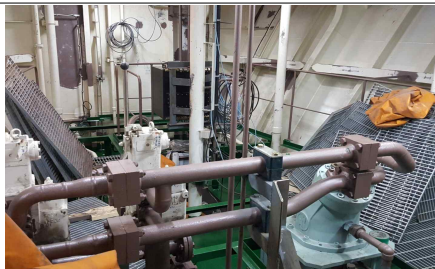
한미르호 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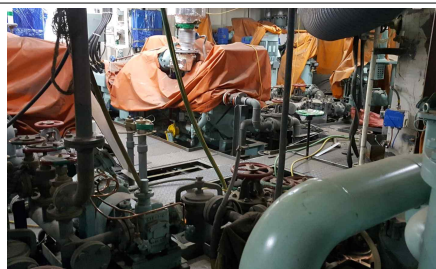
실습선 방향키 및 프로펠러



오징어채낚기 조상기



실습선 엔진룸



실습선 엔진룸